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09호 【루계 제26183호】 주제107(2018)년 11월 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평양에 도착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영접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11월 4일 전용기로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영접하시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뭉쳐진 조선과 꾸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국기게양대에는 우리 나라 국기와 꾸바공화국 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군중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과 꾸바친선의 불멸의 년대기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동지,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용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능오동지,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꾸바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마철수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륙군대장 김수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나와있었다.

또한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돌롱고동지와 꾸바대사관 성원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오후 1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탄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3년만에 또다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에게 녀성근로자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에게 마중나온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소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꾸바측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꾸바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례포가 울려퍼졌다.

2 면 으 로 계 속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사열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답례를 보내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탄 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로 향하였다.

혁명적꾸바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태운 차가 지나는 수도의 거리들과 살림집창가들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이 순안구역과 련못동, 룡흥다리를 지나 려명거리입구에 멈춰섰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차에서 내리자 녀성근로자가 친선의 정을 담은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무개차에 옮겨타시였다.

조선과 꾸바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연도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타신 무개차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이 《평양》, 《아바나》, 《환영》, 《친선》, 《단결》이라고 써치고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들을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타신 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백화원영빈관 종업원들이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베라씨녀사를 숙소의 방으로 직접 안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숙소에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소를 나누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4일 오후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백화원영빈관 회담실앞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델라싸녀사와 따뜻한 분위기속에 만나시여 두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신 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김정은동지와 조선당과 정부, 평양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열광적인 환영에 감동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꾸바당과 정부와 인민은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두 나라 당과 국가활동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호상 통보하시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으며 경제, 문화, 보건,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과 꾸바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께서는 두 나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혁명적원칙과 동지적의리,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특수한 친선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발전시켜오신데 대하여서와 새로운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쌍방의 공통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력사와 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강화해나갈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이 11월 4일 오후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연장소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를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녀성예술인들이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동지, 박태성동지, 리용호동지, 김능오동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김수길동지, 리영길동지,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꾸바공화국 대표단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환영예술공연무대에는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전자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꾸바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수륙만리 떨어진 머나먼 지구의 서반구에서 평양을 찾아온 꾸바의 친선사절들을 환영하여 예술인들은 남성합창 《7월26일행진곡》,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녀성중창 《사회주의 꾸바》,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묶음 《판다나메라》, 《매혹적인 처녀》, 《아름다운 꾸바》,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꾸바씨 양키노》를 비롯한 두 나라의 명곡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며 조선과 꾸바와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형제적인 꾸바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이 넘쳐흐르는 종목들은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조선과 꾸바 두 나라 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은 앞으로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곡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빛나는 조국》으로 끝났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실현에서 어깨겯고 나아가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단결과 전투적우의를 힘있게 과시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출연자들에게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은 자기들을 극진히 환대해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부인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의 부인인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는 11월 4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와 함께 동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일군들이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와 일행을 다뜻이 맞이하였다.

궁전의 교원, 학생소년들이 녀사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는 우리 학생소년들이 훌륭한 교육조건을 갖춘 궁전에서 재능과 희망을 꽃피우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조선무용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수영관 등을 돌아보았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는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와 함께 궁전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11월 4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환영연회장소의 홀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베라싸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꾸바공화국 대표단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의 이번 상봉이 두 나라 친선관계를 영원히 계승해나가려는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과 꾸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꾸바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친선적인 꾸바당과 정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절대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과 꾸바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꾸바에서의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인 시기에 조선을 방문한것은 조선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가려는 꾸바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뚜렷한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꾸바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따뜻이 맞이해주고있으며 훌륭한 환영공연무대를 펼치고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고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이 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최후승리의 래일을 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으며 위대한 인민이 있는 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사회주의한길.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 천만산악도 격랑도 단숨에 헤치른 한줄기 궤도마냥 곧추 뻗어있다.

멀리도 왔다는 감회보다 오직 곧바로만 달려 높이도 올라섰다는 격정에 눈굽이 찌릿해진다.

위대한 우리 인민이 걸어온 력사의 그 장정,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걸어오신 파란만장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시며 하신 뜻깊은 교시에서 찾는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변함없이 전진하는 인민들만이 자주시대의 상상봉에 올라설수 있다.

혁명적신념, 이 위대한 사상정신적힘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올수 있었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

숭엄한 그 부름 조용히 외워볼수록 지난 세기 90년대에 있은 일들이 돌이켜진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느니,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라느니 뭐니 하면서 별의별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그릇된것이고 사회주의혁명을 한것부터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조국에서는 과연 어떤 현실이 펼쳐졌던가.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주의에 관한 사상리론을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서 완성하고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진로를 명시한 강령적학설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겨주신 사회주의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던 그때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붉은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지 않았던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숭엄히 어려온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

정녕 그것은 조국수호를 위한 길인 동시에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걸으신 력사의 장정이였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한몸을 내대시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고패친것은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의지였다.

선택하기도 어려웠지만 헤쳐나가는것자체가 더욱 간단치 않았던 선군의 길이였다.

선군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는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겪으신 고생과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일을 돌이켜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시여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고 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군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야말로 그이께서 지니신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의 거대한 분출이였다.

그 무엇에도 드놀지 않는 우리 장군님의 그 신념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서 남들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을 비약하며 고난이 휩쓸었던 이 땅에 기적으로 충만된 락원에로의 천만리를 펼쳐놓았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과 희천발전소, 녕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수풀처럼 솟아난 발전소들,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훌륭히 변모된 농장벌들에 펼쳐나간 자연흐름식물길들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그뿐이 아니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생산체계의 확립도, 련하기계와 더불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으로 안아온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도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들이다.

오늘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위한 대진군을 진두에서 령도하신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인민의 천만가지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사시는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풍랑사나운 바다길, 위험한 최전연에도 서슴없이 나서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흙먼지날리는 험한 건설장의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때로는 휘뿌리는 모래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그림까지 그려주시며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건설을 지도해주신 우리 원수님.

어찌 그뿐이던가. 어느 한 메기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요즘은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천만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리여 이 땅에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펴나고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조국땅우에 일떠서고있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훌륭한 살림집들과 문화휴식터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멸사복무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우시는 멸사복무, 여기에 사회주의가 인민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된 비결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고 깨뜨릴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그이의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은 일심단결의 불패의 대오가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최후승리의 래일을 가장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본사기자 정순학

김영남동지가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브라질리아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당선자

자이르 메씨아스 볼쏘나루각하

나는 당신이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1월 2일 평 양

주체로 존엄높은 불패의 성새

지난 세기말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한 궤변으로 이 행성이 소란스럽던 때 어느 한 나라 사람이 쓴 론문이 발표되였다.

그는 글에서 어떤 사람들은 동유럽바람이 조만간에 북조선에도 불어올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를 자기 식대로 건설하여놓았다. 그러니 거기에는 다른 바람이 들어갈수 있는 틈이 없다고 하였다.

인류사상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진리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전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천리혜안의 예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신 위인이십니다.》

전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회담하시는 기회에 자신께서 준비한 례제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례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은 농업협동화문제였다.

처음에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례제에 담으시려는 모든 로선이 그 어느 고전에도 없는 로선이기때문이였다.

그들이 가까스로 꺼낸 말이란 기성리론에 기초한 편견들뿐이였다.

그들은 발전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아직 사회주의협동화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데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조선에서 어떻게 먼저 하겠는가고 하면서 자기들은 조선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실시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의 중소상공업의 협동화에 대해서도 다른 큰 나라의 실례를 들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혁명도 하고 사회주의건설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주체44(1955)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례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이 어떻든,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주체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협동화가 인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받아할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또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농민들과 개인상공업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전후시기가 바로 협동화의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보시였다.

수십년이 지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사회주의협동화를 제때에 실시하였기때문에 복구건설도 빨리 할수 있었다고,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협동화를 제때에 실시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나라는 오늘처럼 발전할수 없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석같이 다지신 주체의 터전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우며 건설되였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성새는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주체의 기치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중국예술인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4일 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술인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문화상 박춘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와 주조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중친선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락수강단장은 방문록에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시합니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중국예술인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술인대표단이 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대대로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조국과 민족, 인류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성원들은 한편 주체음악예술발전관을 찾았다.

손님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온 주체음악예술의 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여러 전시구역을 참관하면서 기념비적인 명곡들과 이름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창조, 공연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관심속에 보았다.

중국예술인대표단은 또한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음악당에서 대학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예술인대표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술인대표단이 4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였다.

문화상 박춘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권혁봉동지, 리창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사회주의조선의 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우의의 정이 넘치는 속에 조중친선장을 비롯하여 훌륭한 무대를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한편 중국예술인대표단은 평양대극장에서 피바다가극단이 창작창조한 가극 《백보녀》를 관람하였다.

새 세대들을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의의가 큰 중국의 유명한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예술인대표단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락수강 문화 및 관광부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술인대표단이 4일 우의탑을 찾았다.

중국예술인대표단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락수강단장은 감상록에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할것이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단천전역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현 장 지 휘 부 일 군 들 과 나 눈 이 야 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단천발전소건설의 착공식이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1년 남짓한 시일이 흘렀다. 이 보람찬 투쟁의 나날 단천전역에 전투과지를 차지한 인민군군인들과 각지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공사장마다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정형과 그 전망을 놓고 현장지휘부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수백리 단천전역에서 가장 어려운 건설대상은 바로 작업갱과 기본물길굴공사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공사실태에 대하여 알고싶다.

책임자 심상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옹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수천척 지하막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사회주의건설도 조국보위도 우리가 다 맡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군인건설자들은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렸다. 각 도려단돌격대원들도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수십km구간의 60여개 작업갱을 완성하고 총작업갱공사량의 기본몫을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특히 련속강격,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조선인민군 김성력소속부대와 장일수소속부대를 비롯한 군인건설자들과 대흥지도국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맡은 구간의 기본물길굴도정을 성과적으로 관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라선시려단과 자강도려단, 평양시려단과 북성려단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인 기본물길굴도정의 굴진실적은 계속 뛰여오르고있다.

기자: 단천 1호와 5호, 6호발전소들의 수력구조물건설정형에 대해서도 알고싶다.

참모장 권영래: 조선인민군 김성력소속부대 장병들은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단천 1호발전소공사에서 주요파제인 큰 규모의 조압수조갱피복공사와 덩치큰 발전기실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였다.

단천5호발전소언제공사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정신을 발휘하여 높은 풍사실적을 기록하였다.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 전투원들은 암력관로지지력과 발전기실의 지하구조물콘크리트치기과제를 수행하고 조압수조갱도 성과적으로 관통하였다.

단천6호발전소 수력구조물공사에 떨쳐나선 속도전청년돌격대 제6려단의 지휘관, 전투원들은 이미 우안언제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접속한 기세로 좌안언제콩크리트치기에 드센 박차를 가하여 언제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해제끼였다.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 남포시려단 돌격대원들도 발전기실건설과 방수로굴착공사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기자: 정말 대단하다. 지금까지의 공사경험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책임자 심상모: 북방의 엄혹한 자연조건과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단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나날에 우리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일 때 그 어떤 시련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백배로 키우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올해안으로 작업갱공사과제를 기본적으로 해제끼고 전반적인 기본물길굴도정과 확장공사를 립체적으로 다그치는데 화력을 집중하겠다.

부책임자 윤일: 우리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발전소완공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설장마다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해당 부문,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공사과정에 나오는 비력을 콩크리트피복용골재로 리용하고 정머리수명제고기술과 용착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겠다.

우리 식의 새로운 측정설비들을 현장실정에 맞게 개발도입하여 물길굴암질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암질이 나쁜 물길굴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굴진공법을 확립하며 심리있는 발파가스흡착제생산공정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겠다.

책임자 심상모: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의 관철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

자력갱생은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의 일관한 투쟁방식이고 창조본색이다.

우리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완공함으로써 기어이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 총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다.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정신으로

운 수 대 의 수 송 전 사 들

단천발전소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애국총정의 대오속에는 현장지휘부의 운수대 수송전사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판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수백리 단천전역의 주요물동수송을 다그치는데서 이룩 운수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작업갱과 기본물길굴공사, 수력구조물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각종 설비와 자재수송을 확고히 앞세우는것만큼 공사실적이 뛰여오르기때문이다.

작업갱과 기본물길굴공사장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자재들을 수송해야 할 긴급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대장 박병준동무와 소대장 리남진동무는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과 함께 황북 수현리길을 하루동안에 주름잡으며 단천까지 도착하였다. 하지만 이미 날이 어두워진데다가 높고 험한 령길마다 눈까지 쌓여 계속 전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운수대의 수송전사들은 순간의 주저나 답보도 몰랐다.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이들은 공사장들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각종 양수기와 말파자재들을 한시라도 더 빨리 싣어나를 불같은 열의밑에 수송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란재와 모래들을 덧싣고 쇠바줄과 버팀목 등을 보강한 이들은 가파로운 고개들을 돌아오르며 한마음한뜻으로 운행길을 즐기차게 이어나갔다. 지쳐내리는 자동차를 비탈목이 되여 막아나서고 어깨로 떠밀며 한치한치 전진하는 이들의 투쟁모습은 한목숨 바쳐 직사로를 고지우로 팔어올리던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군상그대로였다.

운수대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서로의 힘을 합치고 뜨거운 진정을 나누며 마침내 공사현장들에 필요한 설비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수송하고야말았다.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물전기재들의 만가동보장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대장 박병준동무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각종 설비들을 그른하게 갖추어놓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는데 솔선 앞장서고있다. 온실농사와 집짐승기르기, 양어도 근기있게 내밀어 운전사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사소한 불편없이 수송과제수행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어쩌 이뿐이랴. 최천발전소 건설때부터 지금까지 증송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운전사들인 김명학, 조덕성동무들, 혁신의 불길높이 매달 과제를 120%이상으로 해제끼고있는 김상혁, 리은철, 김철영동무들, 설비관리에 앞장선 김인철, 김명일동무들과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일감을 두몫, 세몫씩 도맡아하며 운전사들을 위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 김경옥동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천리길을 주름잡으며 단천발전소건설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운수대 수송전사들의 심장은 정녕 불보다 뜨겁다. 하기에 이들은 혁신의 불길높이 공사 전기간 무사고운행을 보장하면서 방대한 량의 각종 물자수송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전투력있는 단위, 온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로 영예떨치고있는 현장지휘부의 운수대 수송전사들은 오늘도 순간의 자막이나 답보도 얽이 증송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며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현지 보도

물길굴이 뻗어간다

황 해 남 도 큰 길 건 설 돌 격 대 황 해 북 도 려 단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어기는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가 맡은 26-1갱 굴진막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전투력있는 단위로 소문난 황해북도려단 돌격대원들의 기본물길굴화장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콰, 콰》, 《푸루룩, 푸루룩》, 《윙윙》

암축기가 내쏘는 바람소리, 착암기와 배풍기들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는 막장에서 려단참모장 리철웅동무의 지휘에 따라 돌격대원들이 력 비터고선 암벽을 향해 세찬 공격을 들이댄다.

굴진명수들로 소문난 리철, 박남철동무들이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련속 천연암반에 발파구멍을 낸다.

정녀가 깊숙이 박힐수록 굳은 바위가 부서져 걸죽한 돌물이 되여 흘러내린다. 끄떡없을것만 같던 천연암반이 온통 벌둥지처럼 되고만다.

혁신자로 자랑높은 발파공이 능숙한 솜씨로 구멍마다 잼싸게 폭약을 장약한다.

잠시후 《뭉, 뭉뭉…》 하고 울리는 발파소리, 반탄형의 웃탄먼이 통째로 무너져내린다.

《려단에서는 새 압축기장진설과 설비설치를 불과 이틀동안에 해제낌으로써 기본물길굴의 확장공사를 더욱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상흰군대대와 연산군대대를 비롯한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한 교대당 평균 4회의 발파를 진행하면서 공격속도를 부쩍 높이고있습니다.》

굴진막장을 가리키며 돌격대 참모장 진창열동무가 우리에게 열정에 넘쳐 하는 말이다.

작업공정이 치차치럼 맞물리는 속에 비력최리를 맡은 돌격대원들도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친다.

현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모두의 얼굴마다에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기본물길굴확장공사에서 기어이 통장훈을 부둥 불갈은 열의가 한껏 비껴흐른다.

절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이곳 려단돌격대원들의 드센 공격전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물길굴이 즐기차게 뻗어나간다.

호평받는 새 양수설비

평 안 북 도 려 단 에 서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양수기를 대신할수 있는 설비를 제작하여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단위들에서는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기본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것이 바로 막장의 물이다. 장마철에 소나기치럼 쏟아지는 석수는 물론 겨울철에도 쉬임없이 차오르는 물을 제때에 처리하는것은 공사속도와 질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난 시기 평안북도려단에서 리용하던 양수기들은 습기와 착암과정에 흘러내리는 돌가루물때문에 자주 가동을 멈추군 하였다.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진 려단장 홍정호동무는 박천군대대 일군들과 양수설비문제를 풀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거듭하면서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였다.

회천발전소건설때부터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기술개조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대대장 박두필동무와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새 양수설비제작에 달라붙었다. 새 양수설비의 제작과정은 결코 헐치 않았지만 절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체질화한 이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전동기를 쓰지 않고 압축공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물을 뽑는 방안을 착상한 이들은 센 압력에 견딜수 있게 부속품가공을 질적으로 하면서 제작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무게가 카멥고 설치와 이동이 간편한 새 양수설비는 석수량이 제일 많은 갱에 도입되여 종전의 설비들보다 더 높은 능률을 발휘하였다.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새 양수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지 않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지난 시기보다 굴진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이곳 려단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새 양수설비를 본 여러 단위의 일군들은 단천전역에 나래치는 자력갱생정신의 귀중한 결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경쟁열풍속에 높아가는 공사실적

함 경 북 도 려 단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양앙을 일으켜야 합니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려단의 일군들은 기본물길굴공사에서 주력을 이루고있는 김책시대대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17-3갱과 17-2갱에서 진행된 굴진경기는 처음부터 치렬하였다.

려단적으로 제일먼저 작업갱공사를 끝낸 김책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계속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열의밑에 굴진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이에 뒤질세라 작업갱공사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던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기본물길굴도갱굴진에서는 반드시 우승의 영예를 지닐 야심만만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였다.

두 막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며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던 어느날이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에서 양수기가 가동을 멈추는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쇠돌증산으로 당을 역세게 받들어온 무산광부들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칠 열의밑에 대대장, 참모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시시각각 차오르는 물속에서도 상부단면천공작업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정치지도원 송광호동무와 대대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양수기를 살려내기 위한 전투를 긴장하게 벌리였다.

짧은 기간에 양수기가 다시 가동한데 이어 고동안 미진된 굴진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공격전이 드세게 벌어지였다.

모두가 떨쳐나 종전보다 발파가스제거시간을 앞당겨 비력최리속도를 높이는 한편 집단주의적력으로 압축공기배관해체와 이동, 설치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면서 교대당 좌우방향의 발파회수를 8회까지 보장하여 최고 7.7m의 굴진실적을 올리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김책시대대에서도 총돌격전이 벌어졌다. 오상철, 조전위동무를 비롯한 대대일군들은 막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앞선 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교대당 발파회수와 굴진실적을 최대로 높이면서 공정별맞물림을 치밀하게 하였다.

막장이 깊어지는데 따라 대대에서는 비력최리가 난문제로 나섰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50hp권양기를 막장안에 들여앉히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광차운반능력과 회전수를 더욱 높여나갔다. 뿐만아니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로력을 절반이나 절약하면서도 상차시간을 훨씬 줄이고 작업갱과 기본물길굴의 교차점에서 광차운반속도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굴진과 비력최리전투가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종전보다 최고 1.7배의 운반실적이 기록되여 100hp권양기를 리용하는 단위들을 놀라게 하였다.

려단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맡은 기본물길굴도갱굴진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한 김책시대대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를 특등으로 평가하고 이들의 투쟁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막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지금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기본물길굴도갱관통의 결승선을 향해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낟알털기성과 계속 확대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에서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아래 각지 생산단위들에서 삼지연군에 보내줄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각종 농기계와 축산기계, 많은 뜨락또르부속품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단위로 꾸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업성 일군들과 농기계공업관리국 일군들은 각지의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단위들에서도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수백개의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하였다.

지금 각지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단위들에서는 앙양된 기세를 늦춤이 없이 삼지연군에 능률적인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삼지연군에 농기계들을 생산보장

함 경 남 도 에 서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낟알털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가을을 끝낸 기세로 낟알털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는데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을 맡고 내려가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걸레질게 해나가고있다. 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예비부속품과 수리공구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탈곡기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낟알털기를 뗄리 접속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기동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도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해당 농장들에 나가 적극 도와주고있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수행하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뜨거운 애국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으로 낟알털기 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련속적인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특파기자 오 철 훈

황 해 남 도 에 서

황남땅이 낟알털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안의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낟알털기전투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낟알털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벼단싣어들이기를 와닥닥 끝낸 기세로 낟알털기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낟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재령군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능숙한 작전과 지휘로 낟알털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맡은 일을 두몫, 세몫씩 해제끼고있다.

특파기자 박 철

평 안 남 도 에 서

평안남도의 협동농장들에서 낟알털기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3일현재 도적으로 많은 협동농장들과 작업반들이 낟알털기전투를 결속하였으며 다른 농장들에서도 낟알털기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집중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낟알털기전투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낟알털기전투를 최단기간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도적인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열두삼천리벌을 비롯한 모든 협동벌들에서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털어내도록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숙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대중과 어울려 일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해주고있다. 군책임일군들은 물론 려단 돌격대원들도 발전기실건설과 방수로굴착공사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기자: 정말 대단하다. 지금까지의 공사경험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책임자 심상모: 북방의 엄혹한 자연조건과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단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나날에 우리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일 때 그 어떤 시련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백배로 키우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올해안으로 작업갱공사과제를 기본적으로 해제끼고 전반적인 기본물길굴도갱과 확장공사를 립체적으로 다그치는데 화력을 집중하겠다.

부책임자 윤일: 우리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발전소완공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설장마다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해당 부문, 단위들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공사과정에 나오는 비력을 콩크리트피복용골재로 리용하고 정머리수명제고기술과 용착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겠다.

우리 식의 새로운 측정설비들을 현장실정에 맞게 개발도입하여 물길굴암질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암질이 나쁜 물길굴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굴진공법을 확립하며 심리있는 발파가스흡착제생산공정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겠다.

책임자 심상모: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의 관철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

자력갱생은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의 일관한 투쟁방식이고 창조본색이다.

우리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완공함으로써 기어이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 총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스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수많은 나라의 정계, 사회계, 문화계, 언론계, 학계의 인사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광범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체의 진리에 공감되여 그것을 신봉하며 따르는 길에 나섰다.

그들중에는 짐바브웨의 사회활동가였던 습바톤도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습바톤도는 열한살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으로 인종주의사회의 막바지에서 10여년간 헤메이던 사람이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손에 총을 잡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그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밀림속근거지에서였다.

어느날 그는 동료들로부터 주체사상에 관한 글이 게재된 한장의 신문을 받게 되였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혼적인 듯 신문은 몹시 보풀이 제일었다.

《주체!》

글을 읽어나가는 그의 뇌리에는 아직 선명치는 않으나 그 무엇인가 밝은 빛발이 비쳐지는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주체사상에 대한 글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들이 실린 신문들을 열심히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해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천고의 얼대림속에 비쳐든 진리의 빛발, 그것은 어둠의 장막을 산산이 찢어버리는 찬란한 서광이였으며 멍든 가슴에 재생의 기쁨과 투쟁의 활력이 솟구치게 한 강렬한 열원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투쟁의 끝, 승리의 새 아침을 알리는 희망의 서곡이였다.

습바톤도에게 비쳐든 진리의 빛발은 그의 인생행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습바톤도는 용솟음치는 힘과 의지를 안고 거리와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지난날의 자신처럼 어둠속에서 헤메이는 사람들에게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적후정찰도 하고 반동통치배들의 소굴을 짓부시는 습격전의 앞장에 서기도 하였다.

짐바브웨인민이 무장투쟁에서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한 후 그도 주권기관의 한 일군으로서 청소년들을 계몽하는 사업을 맡게 되였다.

그러던 1983년 습바톤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아안게 되였다. 친출위인의 주옥같은 분구를 자자구구 새기는 과정에 그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가 가리키는 길에 여생을 끌까지 바치리라 굳은 결심을 품게 되였다.

다음해 조선을 방문한 그는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담아 이렇게 웨쳤다.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빛발을 받아안고 자주의 격랑은 더욱 세차질것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모두의 고마운 스승이십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감정이였겠는가.

생활의 빈곤속에서도 주체사상에 관한 문헌들을 체운 서재만은 정중히 꾸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탐독한 평범한 로동자도, 종교의 세계에서 인간의 정신적안정을 찾던 종교인사도, 수십년간 대학의 교단에서 사회학을 강의해온 정치학박사도 인류에게 새봄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표시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전 파푸아뉴기니카기자련맹 서기장이였던 헤나로 까르네로 제까, 그로 말하면 정평한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찾아 고심하다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접한 때부터 참된 삶의 길을 찾은 사람이였다. 그는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뵙고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병치료까지 받았었다.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하기 위하여 책 《일흔번째 봄》의 집필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제까가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던 시각에도 잉크가 아니라 심장의 피로 써나간 이 책은 그후 그의 무인에 의하여 완성되였다.

제까의 미망인은 남편의 뜻을 이어 책을 완성한 기쁨과 행복을 이런 말로 표현하였다.

《인민들은 인류에게 희망찬 새봄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다. 남편과 나는 이러한 인류의 념원을 조금이나마 실현한데 불과하다. 우리가 못다한 일을 우리의 딸들과 또한 그 자식들이 계속해나갈것이다.》

만민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끓어번지던 뜨거운 흠모의 정, 그것은 용용한 대하마냥 오늘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도도히 굽이쳐 흐르고있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프나 사끼야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인류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커다란 력사적공헌을 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위대한 사상을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들이시다고 격찬하였다.

운명개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스승들을 우러러 더욱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는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앞으로도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겨레의 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인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

어느해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며칠 앞둔 날 조국통일부문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며 민족지상의 과제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두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어조로 우리 인민들이 자신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고 칭송하고있는데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안으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실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이 북받쳐오름을 금할수 없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얼어붙은 분렬의 장벽을 깨뜨리는 통일의 봄우뢰인양 그들의 가슴을 쾅쾅 울려주었다.

명 철 한 대 답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국가수반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실것을 요청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는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애국애족의 넓은 도량

조국통일상수상자선발사업이 한창이던 때의 일이다.

조국통일상을 수여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걷다가 파국과 결별하고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실을 료해하시고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통일애국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조국통일상수상자명단에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비록 지난날 민족을 저버렸다고 할지라도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애국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묻지 않는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시려는 그이의 넓은 도량과 뜨거운 애국애족의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으로 락인

남조선 각계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힘뜯으며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놀음을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해나선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리유없이 당해한것도 모자라 《9월평양공동선언》을 반대해나선것은 스스로 조선반도정화와 북남관계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임을 립증한것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정화와 북남관계발전을 한갖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련대를 비롯한 각계 청년운동단체들도 얼마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이제 쓰레기통으로》, 《경고장》, 《분단세력 라경원》, 《평화발목잡는 김성태》라고 씌여진 푯말들을 들고 반역당패거리들을 쓰레기통에 처넣는 상징의식을 벌렸다.

남조선의 각 정당들도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피하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대결망동을 규탄하고있다.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걸고드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구태의연한 랭전적사고방식의 발로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전세계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있는 때에 유일하게 반평화적행동만 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특종보도감이라고 조소하며 이것은 박근혜의 《수구꼴통정치》, 홍준표의 《위장평화공세론》이 그대로 무활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위헌》시비를 걸고있다고 하면서 그런 행위는 반평화적체질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보수언론들의 비렬한 모략보도행위를 규탄

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로조가 1일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언론들의 비렬한 모략보도행위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서울교통공사에서의 휘발문제를 놓고 그 무슨 《채용비리의혹》을 떠드는 《자유한국당》의 망언을 그대로 되받아외우면서 로조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련일 쏟아냈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로조를 압살하기 위한것이라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보수언론들의 모략보도에 의해 로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로조는 모략보도를 일삼았던 보수신문들과 방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서울에서 조류독감 발생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10월 26일 서울의 성동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이날 체취한 야생조류의 배설물을 검사한 결과 H5형조류독감항원이 검출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습근평주석 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2일 중화전국부녀련합회 지도성원들과의 담화석상에서 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근본담보라고 하면서 각급 당위원회가 녀성들을 중시하고 관심하며 지지하고 그들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중화전국부녀련합회가 남녀평등과 녀성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는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자이르 메씨아스 볼소나루 브라질대통령으로 선거

브라질에서 최근 자이르 메씨아스 볼소나루가 새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고 한다.

팔레스티나외무성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 규탄

팔레스티나외무성이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국방상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중심부에 유태인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오랜 력사를 가진 도시를 유태화하기 위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두개국가해결책》에 기초한 국제결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란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일 이리브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는 원유판매와 은행업분야에 실시될 미국의 제재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날 미국이 해제하였던 대이란제재를 다시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사실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란인민은 자기들이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몽골과 아랍추장국련방 범죄와의 투쟁 강화

몽골경찰이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26건의 자금세척행위를 적발하였다.

10월 30일 이 나라 수상은 자금세척과 테로조직들에 대한 자금지원행위가 나라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하면서 그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같은 날 아랍추장국련방 대통령은 국내에서 자금세척행위와 테로조직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에쟆르에서 테로소탕작전

에쟆르안전군이 최근 시나이반도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무장악당 129명을 제포하고 18명을 처단하였다.

그 과정에 147곳에 있는 테로분자들의 은신처와 군수품창고가 적발되였다고 한다.

1일 이 나라 군부는 올해 2월에 대규모반테로작전이 개시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수백명의 테로분자들이 소멸되였다고 밝혔다.

인디아에서 대기오염방지운동 개시

인디아정부가 1일 수도 뉴델리와 그 주변지역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운동을 개시하였다.

10일동안 진행되는 운동은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현상을 감시하고 위반행위들을 중앙오염통제기구에 신속히 보고하고 대책을 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를 위해 52개의 감시그루빠와 공기정화체계를 갖춘 기술수단들이 해당 지역들에 배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강소성에서 새로운 시비기술 적극 활용

중국의 강소성에서 벼측면심층시비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비료사용량을 줄이고 그 효과를 높이고있다.

벼측면심층시비기술이란 모내기를 높은 정밀도로 하는 동시에 깊은 모뿌리로부터 3-5㎝, 깊이 5㎝되는 위치에 비료를 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모내기와 함께 비료주기를 동시에 하고 모살이와 아지치기시기에 덧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전통적인 비료주기에 비해 작업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비료리용률을 높임으로써 벼생장기간에 영양분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고 아지도 많이 치게 하여 수확고와 품질을 높인다.

시험결과 벼측면심층시비기술을 리용하면 농업기술과 농기계의 융합을 실현하고 완효성비료를 통해 비료를 주는 회수를 줄이며 비료사용량과 리용률, 영양분배합, 시비방식을 최량화할수 있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최근 성의 해주시 강언구에서 벼측면심층시비에 대한 시범상학이 진행되였다.

시범상학에서 강언구부침땅보호부문 책임자는 희락을 희운 완효성비료로 측면심층시비를 한 논에서 예상수확고가 무당 635㎏으로서 일반적인 비료주기때보다 30㎏(5%) 높아졌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중화화학비료주식롱계유한공사에서 생산한 완효성비료를 무당 27㎏씩 기계로 모내기파정에 주고 뇨소를 아지비료와 이삭비료로 무당 각각 6.57㎏, 13㎏씩 뿌려주었다고 하면서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는 일반적인 비료주기때보다 무당 각각 6㎏, 1.8㎏, 1.26㎏ 적게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각각 27.3%, 40%, 28% 절약하였으며 비료주기회수를 2번이나 줄일수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양주시의 한 재배업자는 이 기술이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수확고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400여무의 논에 전부 측면심층시비기술을 도입한 결과 지난 2년동안에 무당 알곡수확량을 35㎏이상 늘이였다고 말하였다.

이전에 그는 논에 비료를 적어도 3차례 주었는데 지금은 밑비료와 이삭비료만을 주며 그 사용량도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살해사건에 대한 엇갈린 주장

오늘의 세계

국제적인 론의거리로 되고있는 사우디 아라비아기자인 하쇼기의 행방불명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10월 19일 사우디 아라비아는 하쇼기가 죽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검사는 하쇼기가 뛰르끼예주재 사우디 아라비아령사관에서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외무성이 전한데 의하면 하쇼기의 살해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있으며 18명의 사우디 아라비아인이 구류되였다. 외무성은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이 왕세자의 측근들을 포함하여 여러 관리들을 혐의하였다고 하면서 진상을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공약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쇼기의 행방불명을 놓고 서방과 사우디 아라비아, 뛰르끼예사이에는 많은 문제거리가 발생하였다.

하쇼기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책을 비난해온 주요비평가이며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의 특별기고자라고 한다.

알려진데 의하면 하쇼기는 뛰르끼예약혼녀와 결혼하는데 필요한 일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10월 2일 뛰르끼예주재 사우디 아라비아령사관에 들어간이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뛰르끼예당국은 그가 령사관안에서 살해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뛰르끼예의 언론들도 이에 목소리를 합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하쇼기가 령사관에 들어갔다가 얼마안되여 그곳을 떠났다고 하면서 뛰르끼예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하쇼기를 살해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리들도 나돌았다.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한 보도수단들은 미국정보기관의 소식을 인용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당국이 하쇼기를 유인하여 체포할데 대한 명을 내렸다고 전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내무상은 하쇼기의 행방불명을 자기 나라와 련관시키는 주장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그것이 자국정부를 반대하는 《기짓말》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정치적압력이나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는 자국이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요한 역할을 놀고있는것만큼 어떠한 행동에도 더 큰 행동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쇼기가 《워싱톤 포스트》의 특별기고자였던 까닭으로 미국의 태도여부가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되였다.

하쇼기의 행방불명이 처음 알려졌을 때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처벌할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제재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시사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태도는 바뀌여졌다.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비난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급속히 확대되고있는데 대해 비정하면서 서루 론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소리를 하였다. 하쇼기의 죽음을 사우디 아라비아와 련관시키고있는 뛰르끼예에 증거물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을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추측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판매문제를 놓고서도 하쇼기사건이 판매를 중지시켜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무기판매계약이 취임후 첫 해외방문인 중동행각시 미집권자가 이룩한 성과물이기때문이다, 이번 사건때문에 거액의 군수품판매가 취소되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중간선거도 영향을 받을수 있기때문이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AP통신은 자국의 립장이 중동에 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가장 확고한 옹호로 된다고 평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하쇼기의 행방불명에 대한 질문을 발표하였지만 많은 나라들은 이 사건이 의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다고 보고있다.

뛰르끼예검사들은 사우디 아라비아령사관의 뛰르끼예직원들을 심문하면서 이 사건의 실머리에 대한 추적의 흑을 넓히고있다.

도이췰란드는 하쇼기의 살해사건을 거듭 규탄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에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무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제재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사건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게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하쇼기의 죽음에 대하여 인정하자 미국도 이 나라에 대한 처벌립장을 밝혔다. 미국무장관은 일부 사우디 아라비아관리들에게 하쇼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사증취소와 제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처벌조치가 마지막이 아닐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내외여론에 못이겨 이와 같은 발표를 하였을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를 고려할것이다, 위협은 하면서도 신중히 고려하는 방식이 미국의 선택안으로 될것이다고 하고있다.

현재 중동에서는 대국들의 각축전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그러한 조건에서 이번 사건으로 중동정세가 더욱 복잡해질것으로 정가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우호조약을 둘러싸고 더욱 긴장해지는 이란-미국관계

얼마전 미국이 이란과 체결하였던 우호조약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이란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서면각서를 미국측으로부터 받았다는것을 공식 밝혔다.

1955년에 두 나라사이에 체결되였던 조약은 우호, 경제관계 및 령사권리에 관한 조약이다. 당시 이란은 친미적인 파흐라비가 통치하고있였다.

미국이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한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최근년간 이란이 이 조약을 미국의 대이란제재의 비법성을 까밝히는 주되는 법률적근거로 내들고있기때문이다.

지난 7월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위하고있는 대이란제재조치들이 1955년 우호조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탈퇴를 규탄하면서 자기 나라 정부가 미국의 위법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할것이며 이에 따르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법적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2016년에 이란은 자기 나라가 1983년에 있은 베이루트주둔 미해병대에 대한 폭탄테로공격을 《지원》하였다는 리유로 미국이 동결시킨 20억US$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에도 이란은 미국의 동결조치를 질도행위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1955년 우호조약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란의 련이은 소송을 놓고 해당 조약은 1979년 이란이슬람교혁명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더이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따라서 대이란제재는 절대로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 후 이란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이란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미국에 있어서 1955년 우호조약은 거치장스러운 장애물로 되였다. 외신들이 정한바와 같이 미국은 더이상 이 조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미전에 미국무장관은 자국이 이란과의 1955년 우호조약을 파기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때 그는 이란이 정치적목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악용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나는 미국이 이란과의 우호조약을 파기할것이라는것을 발표하는바이다, 솔직히 말하여 이것은 39년동안 지연되여온 결정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미국은 파기선언을 하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냈지만 그것이 실지로 효력을 발생하자면 적어도 1년이 걸릴것이다.

본사기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지진

최근 세계적범위에서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10월 30일 뉴질랜드 노스섬의 와이라라부근에서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서 10월 28일에는 엘 쌀바도르의 서남부 태평양수역에서 리히터척도로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수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낳고있다.

지난 9월말 인도네시아의 중부 쑬라웨씨주에서 여러차례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의 재해판리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10월 28일현재까지 사망자수는 2 086명, 부상자수는 약 4 440명으로 늘어났으며 6만 8 770여채의 살림집과 컨뷸, 7개의 다리, 168개소의 도로구간이 파괴되였다.

자주 발생하는 지진은 사람들을 불안속에 몰아넣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잡지 《뉴스위크》는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 지구에서 그 어떤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는 징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2003년 12월 26일 이란의 케르만주 밤시에서 대지진으로 하여 4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 22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이 일어나 여러명이 죽었다, 2003년 12월 한달동안에만도 세계적으로 200여차례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하였다. 그중 리히터척도 6이상의것만 해도 8~10차례, 리히터척도 5.5정도의 지진은 무려 100여차례에 달하였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리히터척도 4이상의 지진은 해마다 1만여차례 일어난다. 리히터척도 8이상의 대지진은 년평균 1차례 일어난다. 리히터척도 7의 대지진은 년 10-20차례에 달한다. 강한 지진은 년 100차례, 중간급은 수천차례, 작은 지진인 경우 수만차례에 달한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피해의 크기는 땅껍질면이 흔들리는 정도와 건물의 견고성 등에 달려있다.

1988년 아르메니야에서 있은 지진때에는 5만명이상이 죽었으며 1976년 중국의 당산대지진때에는 24만명이 목숨을 잃고 16만명이 중상을 입었다. 력사상 몇십만명이 목숨을 잃은 지진은 여러번 있었다. 사망자 2만명급모의 지진은 10년에 한번의 비률로 일어난다.

한 지진이 다른 지진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되는 때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는 한 지진이 수십㎞ 떨어진 곳에서 다른 지진을 발생시켰다.

본사기자

ㄱ-181175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등록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